

필요한 사람이 되기까지



선우목재(주)의무실 이 강 주

찬란히 피어나던 내 소녀적의 꿈과 백의의 천사만큼이나 순결하고 순수하게 그려보던 나이팅게일이 너무 내 마음속에 자리하였기에 내가 간호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던 그때를 새삼 뒤돌아보며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아른거리는 칠성상, 지금은 회사의 한 여사원으로 듣기에도 익숙해진 돌파리 의사라는 애칭(?)으로 불리운다.

삶이란 범주 안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음미하며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려는 범인(凡人)이 되었으니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꿈은 바닷가 모래위에 사라져간 파도의 자취처럼 현실이 중요하기에 허망한 물거품이라고 스스럼없이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자리에 주어진 여건에 충실할 수 있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매사에 대처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내 스스로 자위하며 달래보곤 한다.

첫 병원생활에서 환자와 나의 단순관계에서 이루어지던 의무적 봉사활동에만 익숙해졌던 내가 회사의 보건관리담당직을 맡으면서 수백명 집단의 짜임새있는 규범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회사생활에 쉽게 적응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단순업무만이 아닌 생소하고 복합적인 업무에 부딪쳤을 때 난감했던 마음은 울음이라도 터뜨리고 싶었고 편히 쉬어야 될 깊은 밤에 환자가 생겨 환자와 이병원 저병원 문을 두드리다 밤을 지새우며 잠을 설치버리고 다음날의 피곤한 내자신에 대한 회의와 애처로운 연민의 정도 갖게끔 하였다.

세월이 약이랄까!

생활의 조화랄까!

알게 모르게 변해버린 내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 슬하게 많은 사연들과 함께 엮어온 회사생활이 어찌면 먼훗날 나혼자만의 그리움으로 남게 되겠지하고 생각해 본다.

서로 다른 수백명의 남과 남이 모인 곳에서 어머니와도 같고 동생과도 같고 오빠와도 같은 사람들과 마주 대하며 눈에 들어간 티끌이라도 씻어줄 때 은인을 대하듯 넘죽 절하며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의무실문을 나설 때 땀결은 작업복의 소박한 모습에서 나의 모든 피곤은 사라지고 귀엽기만한 막내여동생과도 같은 소녀가 멈칫멈칫 털어놓는 사연에 상당역이 되어주며 오가던 대화속에 싹튼 정은 내 가난한 마음 모퉁이에 보람의 싹을 트게 하였다.

사회에서와 직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란 결코 크고 어렵고 힘이 들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평범한 깨달음과 아울러 보건담당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결코 짜증내지 않고 밝은 웃음으로 직장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